

세상에 언약을 회복한 자 (왕하 19:29-37)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이다. 유다는 작은 나라이나, 큰 나라 앗수르를 이겼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는가? 지난주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심을 들었다.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저주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인간이 저주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에서 해방되고 문제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복음을 주셨다. 교회사에 복음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 적이 없다.

이 중대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0.1%의 사람이다. 체험을 하려면 복음을 전해보면 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모르면 믿음이 분명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두려워 할 이유가 확실하지 않다. 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뭘지 정확히 모르면 그 다음 단계가 생각이 안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중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직분이다.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 아래의 제자들이 각자의 직분을 행했다. 그것이 세계 복음화이다. 보호자, 식주인들은 그 직분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단어들이다. 현재 교회 안에도 그런 직분들이 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직분이다. 사역자, 전도자, 렘넌트 다 직분이고 신분이다. 이런 직분을 통해서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직분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받은 응답으로 증인될 사람을 계속 찾고 있다. 하나님은 이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한 개가 딱 있다. 다른 어떤 것도 가치있는 것이 없다. 이것 하나만 가치가 있다. 전세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 저주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한 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음도 알게 하셨다. 알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믿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증인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누릴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야 증거가 나오기 때문이다. 계속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두려지고 증거가 나오고, 그 증거로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면 저주와 재앙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이 증인이다. 그래서 이 답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경해놓으셨다. 이것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바란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응답 받고 사단 반드시 무너지게되어 있다. 간혹 우리가 이런 저런 영적문제라도 고질적으로 보이는 문제들이 있다. 다른 보통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기도 한다. 일반 은총이다. 그런데 진짜 안되는 문제들이 있다. 그 때는 정말 언약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당한 사람은 진짜 증인될 찬스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서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생긴다. 조그만 문제를 이야기 하는 사람과는 대화가 되지도 않는다. 너는 그정도가 지고 그러냐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 받게 되어 있다. 이 답을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성경에는 많은 예가 있고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다. 지금 진행중인 사람도 있다. 참 놀라운 일이다. 다시 한번 약속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언약이 되기를 바란다.

1. 세상에 언약을 회복한 자

히스기야이야기이다. 이것은 히스기야시대의 역사이다. 역사는 실제로 있었다는 뜻이다. 앗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는데 아주 큰 나라였다. 그 나라와 어느날 전쟁이 붙었다. 그런데 결과는 앗수르 군대 전멸이었다. 18만 5천명 죽었고, 왕도 돌아가서 죽었다. 남아 있는 왕 한명도 죽었는데 유다라는 조그만한 나라의 완승이었다. 메시지가 뭐냐면 나라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언약이 있고 없으냐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사실 전쟁이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다. 경제와도 전쟁붙었다. 문제는 계속 온다. 그 문제와 전쟁붙어야 한다. 가정에도 많은 전쟁이 있고 현장에도 있고 직장에도 전쟁이다. 우리는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두려보면 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는 왜 이런 승리와 정복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본다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처음 약속한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신다. 왜 반복하시냐면 약속한 것이 한 개 뿐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것을 잘 안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한가지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오늘 본문은 앞의 18장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부터 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다. 예전에 내가 복음 모를 때에는 정직하게 라는 단어를 들을 때 거짓말 안하고 정직하다는 것이 들어왔다. 복음을 모르니 윤리나 행위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종교라고 하는 것이다. 이 정직이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에 대하여 기록한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다. 4절에는 그 내용을 써놨는데, 여러 산당이나 우상들을 다 부숴버렸다는 것이다. 유다에 보면 몇 왕이 언약을 회복한 왕들이 있는데 많지 않다. 그 대부분의 왕들이 산에 있는 산당은 그냥 두었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도록 지정한 장소는 전세계에서 한곳, 예루살렘 성전 한곳이다. 거기 말고는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한 곳이 없다. 지금은 오직 그리스도인것처럼 다른 데는 없다. 오직 그 성전에서. 그런데 언약을 회복한 왕들도 높은 산위에 가서 예전에 성전이 없을 때 제사를 드린 것처럼 하는 것은 용인했다. 왜냐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동물들을 데리고 오는게 어려웠기 때문이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금지한 것이다. 그래서 전국의 산당을 다 깨버렸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한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성전으로 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이다. 이것이 다른 왕들과 다른 점이였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놋뿔도 나오는데, 광야에서 뱀에게 물렸을 때 놋뿔을 바라본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계속 비는 것은 종교인 것이다. 많은 왕들이 다 놋뿔을 다 깨뜨렸다. 그래서 느후야단은 놋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 그대로 한 것이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런 왕이 없었다는 것이다. 전후 여러 유다왕중에서, 여기에 히스기야가 받은 모든 응답과 기적이 다 있는 것이다. 6절에는 보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모세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이다. 이것이 답이다. 히스기야같은 기적의 인생을 살기 원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형통하게 하셨고, 그가 앗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뭐든 형통했다는 것이다. 언약이 이렇게 확실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자기 것을 아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말씀만 하면 되는데, 히스기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나라 크다고 그 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하는가 하면서 끊어버린 것이다. 앗수르 왕이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이다. 그래서 쳐들어 온 것이다. 큰 나라가 쳐들어 왔으니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나라인 유다는 상대가 안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마음이 녹아서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빌고 금을 보내고 은도 보내고 그랬다. 열왕기하 18장 15절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공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16절에는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성전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앗수르 왕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내가 잘못했다는 의미로..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런데 이 앗수르 왕이 안 돌아가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고도 안 돌아가는 것이다. 만일 이런 계획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금이나 은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히스기야를 압박하니깐 히스기야가 사신을 앗수르에 보냈다. 그런데 앗수르 왕이 그 사신 편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니 하나님을 너무나 모욕하는 것이였다. 그래서 아무리 히스기야가 육신적으로 부족해서 금도 뜯어주고 했지만 너무 분통이 터지는 것이였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

하기 시작하였다.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시라고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과연 앗수르가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수많은 신들을 점령했지만 그 신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돌과 나무들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들하고 비교할 분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구원하시면 천하 만국에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거라는 것이다. 앗수르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쳐들어가는 나라마다 전부 점령을 다 했다.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처럼 쳐들어가는 곳마다 다 이겼다. 그런데 조그만한 유다 하나를 못이겨서 싹 다 죽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저 조그만 나라가 자기들도 못 이긴 나라를 이기니까 깜짝 놀란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은 선지자들이 엉뚱한 소리한다고 죽여버리곤 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무슨 일이 있으면 선지자에게 연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부탁도 했다. 그러다가 이 기도가 끝난후 선지자 이사야에게서부터 먼저 연락이 왔다. 그것이 19장 20절이다. 이사야가 전하기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 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였다. 결론적으로 앗수르 왕에게 하실 말씀을 선지자에게 준 것이다. 앗수르 왕 니가 한 짓은 너의 힘이 아니고 태초부터 내가 가진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모르고 교만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대적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결론은 19장 28절에 나온다. 니가 나에게 행한 분노와 교만이 내 귀에 들렸기 때문에 너를 오던 길로 다시 돌이키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선지자가 히스기야왕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전달했다. 그래서 본문 36절에 군사가 십팔만 오천명이 다 송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룻밤새에. 십팔만 오천명이면 보통이 아닌 숫자이다. 큰 나라니까 능히 그정도 군대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숫자 많으면 뭐하나? 언약 가진 사람 때문에 하루 아침에 다 죽는 것이다. 왕 혼자 남았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37절에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경배할때에 암살을 당하게 된다. 역대하 32장에 같은 기록에 보면 이 암살한 사람들이 자기 몸에서 난 자라고 하였다. 즉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다. 군대 다 죽고, 자기는 아들 둘에게 살해 당한 것이다. 중요한 메시지이다. 하나님에게 대들면 이렇게 된다. 그 메시지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것이다. 언약에 정직하면. 그러니까 너도 히스기야처럼 언약에 정직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앗수르 전쟁에서 이겼다. 전쟁하러 나가지도 않았다. 금 떼주고, 그러긴 했지만 전쟁하러는 아무도 안 나갔다. 기드온은 300명 가지고 메뚜기 떼같은 적들에게 승리했다. 그 300명도 나가서 칼도 휘두르지 않았는데 자기끼리 싸워 죽었다. 그 때는 정말 우상을 숭배하던 사사시대였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했다. 너의 아버지 집의 둘째 수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아버지가 유지였을 것이다. 아세라 목상, 바알상을 세웠는데, 그 것 다 찍어 버리고 태워서 둘째 수소로 제사 드리고 나가라고 한 것이다. 상대는 메뚜기 떼처럼 많지만 이스라엘에서 모집한 사람이 이만명정도 왔는데 너무 많다고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겼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다른 우상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왕을 포함한 모든 군대가 다 죽었다. 중대한 메시지이다. 완전 승리, 완전 정복이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이 언약을 자신이 회복하고 이것을 세상에 전달하고 회복하는 자가 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람 기도 응답 받는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축복이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으면 다 되는 것이다. 언약의 사람 옆에 준비해놓은 것이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면 수고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다. 왜냐면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언약이 되면 어떻게 되나? 그것이 망대가 되는 것이다. 내 문제에 대해 망대가 되고 내게 역사할 사단에 대해서 망대가 되는 것이다. 좁게는 내 인생의 망대이고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망대가 되는 것이다. 옆에

말씀이 없으면 방향을 잡을수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의 방향을 잡을수가 없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는 이 두가지 축복이 있었다.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 옆에 시대적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될지 다 말해줬다.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는 전쟁을 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떻게 될지를 알면서 사는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놓치면 안된다. 성경을 읽을 때 메시지를 깨달을수 있는 사람은 성경으로 답을 낼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에 맞게끔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성경을 바탕으로 한 이 시대의 메시지이다. 이 메시지,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의 이 메시지가 나의 미래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믿음이 없으면 또 안된다. 아무리 이사야가 시대적인 선지자라 해도 그 말을 믿지 못하면, 인간의 소리로 들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다. 만일 히스기야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마음 고생 많이 했을 것이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본주의 자동으로 나오고 불행했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그 말씀을 주는 자가 옆에 있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전쟁을 믿음으로 은혜로 미래를 알면서 치룬 것이다. 말씀은 떨어지면 우리가 믿지 않아도 그대로 된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누리면서 가게 된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 대한 말에 대해 믿지 못했으면 마음 고생 많이 했겠지만 그러나 그대로 성취되었을 것이다. 나중에는 울고 회개하겠지만 그 동안 쓸데 없이 마음 고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면 누리면서 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한가지 더 생각할 것은 히스기야가 전쟁 초기에 좀 흔들렸다. 성전 기둥의 금을 다 떼어서 줬다.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 보냈다는 것 다 좋지만 히스기야같은 사람이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도 다 보내는 것은 불신앙이다. 두렵고 겁이 나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명히 잘못 된것인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축복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면 하나님 눈에는 히스기야가 잡고 있는 언약이 보이기 때문이다. 실수나 죄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실수에 잡혀 있으면 안된다는 메시지이다.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불신앙한 것이 그렇게 마음을 친다. 나쁘다는게 아니라 정상이다. 그러나 거기에 잡혀서 못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불신앙과 죄와 실수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는 너의 안에 있는 내 언약을 볼 것이다. 아브라함도 두 번이나 실수 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는데, 이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였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불신앙의 현장에서 그는 나의 선지자라고 하였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다. 다윗도 남의 아내를 빼앗다. 그정도가 아니라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들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도 말하기를 내 종 다윗이라고 하였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앗수르를 죽이겠다는 것이다. 이유는,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참 놀라운 일이다. 그냥 나를 위하여라고 하면 될텐데, 거기에 다윗을 넣었다. 남의 아내 빼앗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인본주의 써서 그 남편을 죽게 하였다. 그런데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나라를 지키겠다. 언약이다 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피, 하나님의 언약만 본다. 이것 가진자 승리하고 정복하고 증인된다. 그러면 망대이다. 그래서 절대 실수에, 죄에 잡혀 있지 말아라.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다. 어쩔수 없이 죄를 짓는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 그러나 잡혀 있지 말라는 것이다. 언약을 회복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 들어주셨다.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말씀을 줄 자를 옆에 붙여 주셨다. 실수도 했지만 개의치 않으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행하실줄 믿는다. 감사하고 다시 한번 언약 잡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미국 남미 살리는 자들이 되기 바란다. 우리의 미래가 이 언약안에 있다. 승리하기 바란다.